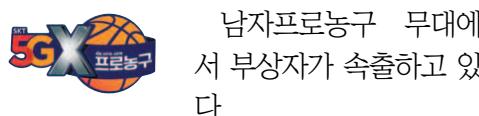




모비스 이대성 KT 허훈 SK 김민수

KBL, 부상과의 전쟁

선두 모비스 이대성 전력이탈
KT 허훈·로건 햄스트링 부상
LG 그레이·SK는 김민수 공백



남자프로농구 무대에
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
다.

부상은 종목을 막론하고 선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요소다. 시즌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
규리그에서는 각 팀마다 부상자가 늘고 있
어 코칭스태프의 근심이 늘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울산 현대모비스(20승3패·1위)는 최근
이대성(종아리 부상)에 이어 양동근(발
목 부상)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가드진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선수총
이워낙 두꺼워 새년 쇼터, 박경상, 김광철
등이 공백을 채우고 있지만 5일간 3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
이 적지 않다. 양동근은 이번주 안에 복귀
가 가능하지만, 이대성은 아직까지 가벼운
리泞 정도만 소화하고 있어 복귀가 늦어질
전망이다.

부산 KT(14승9패·3위)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허훈과 외인가드
데이빗 로건이 나란히 햄스트링 부상을 당
했다. 허훈은 근육이 찢어진 것은 아니지만,
타복상이 심해 내년 1월 올스타전 전후로
복귀시기를 잡고 있다. 로건은 한 차례
다친 부위를 다시 다쳤다. KT는 병원검진
결과에 따라 일시제제 선수 영입까지 고려
하고 있다. 로건의 부상으로 마커스 랜드
리의 부담이 커졌다.

창원 LG(12승11패·4위)는 시즌 내내 부
상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을 단 한차례도
구성하지 못했을 정도다. 빅맨 김민수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 아예 올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다. 센터 최경은
경기 출전은 강행하고 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한 채 경기만
겨우 소화하고 있다.

프로농구 10개팀은 1주일에 3경기, 많
게는 4경기까지 소화하고 있다. 빠듯한 일
정에 부상자가 더 늘어날까 각 구단은 노
심초사다. 정지우 기자 stop@donga.com

バスケットボール ブレイク | 조던 개인 최다득점에 근접한 르브론 제임스…KBL 최다득점엔 도전자가 없다

추격자 킹 제임스, NBA 1위 압둘자바 쫓는다

<최다득점>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오른쪽)가 1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시즌 워싱턴 위저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존 월의 마크를 피해 슛을 던지고 있다. 제임스는 NBA 정규리그 개인 통산 최다득점 4위 마일을 조던에 436점 차로 따라붙었다. 워싱턴(미국) | AP뉴시스

다음 시즌엔 브라이언트 추월 모드
3시즌 뒤엔 1위 기록 도전도 가능

KBL 선서장훈 1만3231점 역대 1위
SK 헤인즈, 3위 추승균 기록에 근접

NBA 정규리그 통산 개인 최다득점순위

순위 이름	통산 득점	경기	평균득점
1 카림 압둘자바	3만8387점	1560	24.6점
2 칼 말론	3만6928점	1476	25.0점
3 코비 브라이언트	3만3643점	1346	25.0점
4 마이클 조던	3만2292점	1072	30.1점
5 르브론 제임스*	3만1856점	1172	27.2점

※17일 현재. *=현역

KBL 정규리그 통산 개인 최다득점순위

순위 이름	통산 득점	경기	평균득점
1 서장훈	1만3231점	688	19.23점
2 김주성	1만288점	742	13.87점
3 추승균	1만19점	738	13.58점
4 애런 헤인즈*	9793점	476	20.62점
5 문경은	9347점	610	15.32점

※17일 현재. *=현역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34·203cm)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2019 시즌 개막 후 30경기를 뛰며 평균 27.7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17일(한국시간) 현재 NBA 정규리그 개인 통산 최다득점에서 3만1856점으로 5위에 랭크돼 있다. 올해 11월 월트 챔피언십(3만1419점)을 6위로 밀어냈다. 4위인 '농구황제' 마일을 조던(3만2292점)에 비짝 달았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시즌 내에 조던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던 넘어 브라이언트를 향하는 제임스

NBA 개인 통산 최다득점에서 제임스는 조던과 436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들어서도 꾸준하게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부상만 없다면 무난하게 4위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LA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만 52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스케줄이다.

제임스는 NBA 개인 통산 최다득점 3위인 코비 브라이언트(3만3643점)와는 1787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평균 27점대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번 시즌 내에는 브라이언트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19~2020 시즌이면 무난하게 NBA 개인 통산 최다득점 3위도 점령할 전망이다.

제임스는 올해 여름 LA 레이커스로 이적하며 4년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적으로 3시즌을 더 활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평균 20점 정도를 3시즌 동안 해낼 수 있다면 약 5000점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1위인 카림 압둘자바(3만8387점)에게도 도전을 해볼만한 수치다.

●불멸의 경기 평균 30.12점 '농구황제'

개인 통산 득점에서는 계속 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이는 조던. 그러나 그는 불멸의 기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선수 생활을 동안 경기 평균 30.12점을 넣어 이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챔피언으로 30.06점이다. NBA에서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경기 평균 30점을 넘는 득점력을 선보인 선수는 둘밖에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조던은 득점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NBA에서

최소 경기 3만1000점과 3만2000점 돌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상 선수 중 유일하게 한 경기에서 40점 이상을 넣은 것 역시 깨지지 않고 있다. 최고령 한 경기 50점 이상 득점도 그가 38세에 세운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득점과 관련된 각종 랭킹에서 조던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수생활 도중 야구로 외도를 했던 그가 꾸준하게 NBA에서 활약했다면 개인 통산 최다득점 1위도 충분히 달성을 했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내프로농구 통산 득점 랭킹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NBA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진행된 국내 남자프로농구인 KBL 정규리그 통산 개인 최다득점을 살펴보면 최근 방송인으로 엄청난 주가를 기록 중인 서장훈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서장훈은 통산 688경기에 출전해 1만3231점을 기록했다. 경기 평균 19.23점으로 외국인 선수 못지 않은 득점력을 뽐냈다.

2위는 지난 시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던 김주성으로 1만288점, 3위는 이번 시즌 초반까지 전주 KCC의 지휘봉을 잡았던 추승균 전 감독으로 1만19점을 넣었다. 4위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형' 외국인선수 애런 헤인즈(서울 SK)로 9793점을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우승 탇인지 복귀 이후 예전과 같은 득점 페이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1만점에 207점만을 남겨뒀다. 이번 시즌 도중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경기를 치르면서 득점 페이스가 살아난다면 추승균 전 감독의 기록 경신도 기대해볼만 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운수대통 박상현 “35세·프로 14년차에 신인왕 기쁘다”

<아시안 투어>

상금 1위 샤르마·자격 요건 해당 안돼
상금 2위 박상현 신인왕·유럽 풀시드
“전반기 JGTO·후반기 유럽투어 매진”

“시상식 참석 때문에 귀국 비행기도 하루 늦췄어요.”

본인조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영광이었다. 서른다섯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거머쥔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 프로 14년차 베테랑 골프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트로피였다.

올 한 해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박상현(35·동아제약)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올 시즌 아시안 투어 신인왕과 내년도 유럽피언 투어 풀시드를 동시에 획득하면서 풍성한 연말 선물을 쟁겼다.

박상현은 16일 막을 내린 아시안 투어 최종전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를 이븐파 288타 공동 41위로 마쳤다. 비록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아시안 투어 상금랭킹 2위(56만 6211달러·약 6억4129만원) 자리 끝까지 지

켜냈다. 박상현으로선 무엇보다 중요한 상금 2위 수상을 했다. 상금왕을 차지한 슈방카 샤르마(22·인도)의 독특한 신분 때문이었다. 아시안 투어는 상금왕에게 내년도 유러피언 투어 풀시드를 부여한다. 동시에 신인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에게 신인왕 자리를 준다. 그런데 샤르마는 이미 유러피언 투어 풀시드를 확보한 상태였고, 아시안 투어 신인 자격도 아니었다. 이에 상금 2위에 오른 박상현이 두 가지 선물을 모두 안을 수 있었다.

최종전 다음날인 17일 연락이 닿은 늦깎이 신인왕은 한층 상기된 목소리였다. 박상현은 “사실 이곳(인도네시아)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인왕 수상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래는 대회가 끝난 18일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시안 투어 측에서 시상식 참석을 부탁해 부랴부랴 귀국 비행기를 하루 늦췄어요.” 멋쩍게 웃었다.

생애 첫 신인왕 등극이라 더욱 남다른 수상이었다. 박상현은 “사실 한국프로골프(KP GA) 코리안 투어와 일본프로골프(JGTO) 투

어에서 모두 신인왕에 오르지 못했다”며 “그런데 대체 14년차인 올해 서른다섯이라는 나이로 이 영광을 안게 됐다. 열렬히하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상현은 이번에 거머쥔 내년도 유러피언 투어 풀시드 덕분에 행복한 고민을하게 됐다. 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 까지 3개 투어를 모두 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상현은 “갑자기 풀시드 부자가 됐다. 고민을 한 결과, 일단 내년도 전반기에는 JTG O 투어를 메인으로 뛰고 후반기에는 유러피언 투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 투어에 너무 몰두할 경우 다른 투어에서 시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시즌 정말 많은 대회를 뛰었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며 “동계훈련은 내년 1월 초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체력을 기른 뒤 1월 중순 JTGO 투어 싱가포르 오픈으로 개막전을 치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